

완성을 이룬 니고데모의 고뇌

말씀 /요한복음 3:1-15

요절 /요한복음 3:6,7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사건 :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사건.

†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 하나님나라를 체험하기 위하여 거듭남의 필요성, 방법과 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1,10)?(참조 요19:39) 그는 어떤 점에서 인간 완성을 이룬 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지도자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정치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학자요, 부자였다.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바리새인(the Pharisees) :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이라는 뜻으로 현실을 도피하지 않으면서도 이방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성결된 생활을 하며 구제사업을 하였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후 계속하여 이방의 압제하여 있었다. 그때마다 성전에 이방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런 이방의 혼합종교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민족운동이 바리새 운동이다. BC 5세기경 에스라때부터 시작하여 그 뒤 BC 2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이후 유대의 헬라화정책에 대항하여 생명을 내걸고 율법을 지키며 경건주의 운동을 계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열정적이었습니다. 율법의 일점일획도 어김없이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여 ‘미쉬나’라는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년시절에 모세 5경을 암송하고 서기관들이 만든 미쉬나(이를 해석한 것이 탈무드)를 공부해야하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장로들의 유전도 온전히 지켜야 했다.

유대인의 관원(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 ‘산헤드린 회원’을 가리킴. 원래 원로원이었는데 헤롯 대왕때부터 공회 혹은 대심판소라고 불리웠다. 이 공회는 70인으로 구성되었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중 최고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이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권력기관이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를 다스리는 사법권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유대인의 관원이 되기위해서는 귀족출신으로 가문과 재산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소유하고 덕망이 있어야 했다. 또한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로서 천문학,수학,웅변,철학,역사,의학공부를 해야했다.

선생(Israel's teacher) : 그 당시 선생이라하면 학문이 깊고 덕망이 높은 지도자로서 모세와 엘리야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다. 산헤드린의 의장이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면 그는 로마와 유대 사이에 일어나는 정치적 갈등을 중재하는 실력가였다고 합니다. 또한 가난하고 짓밟힌 나라 형편에도 불구하고 부자였다(요 19:39).

요19:39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 지라

☞ 니고데모는 성실한 종교 지도자요, 능력 있는 정치가요, 존경받는 지도자요, 학식을 갖춘 지성인이요, 게다가 부자였다. 그는 4박자가 맞는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자같이 보인다. 이상에서 볼 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로 존경받는 정상의 위치에 있었다. 명예와 권력, 그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부자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다. 이런 그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볼 때 인간완성을 이룬 자라고 말할 수 있다.

2.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까(2a)?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2b)?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 그런데 그가 어느 조용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 니고데모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행하신-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표적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

☞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첫째,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을 수 있다. 둘째, 예수님과 친밀하고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바쁜 낮시간을 피해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이 밤이라는 데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내면상태를 볼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 의미하는 것은 어두움을 상징하듯이 그가 내면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무의미와 공허감으로 몸부림치고 고통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높은 학식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소유했지만 만족하지 못하였다. 최상의 사회적 지위와 인간조건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갖춘 부러울 것이 없는 그였지만 그의 마음은 밤과 같이 어둡고 공허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인생문제, 내면문제로 고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1:18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2:24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5:18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함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 자아완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고뇌해야했나?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사회적지위와 종교적 열심으로 채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자아완성, 인간완성을 이룬 자라 불리울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의 노력으로 도저히 채울수 없는 그 빈 공간이 너무나 크고 공허함을 느낄 뿐이었다.

인생에서 성공하였지만 절망과 허무에 빠진 사람들

1) 톨스토이 :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뛰어난 지성,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소유했지만, 그의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방황하였다. 그를 엄습해 오는 죽음의 세력이 무서워 자살에 쓰이게 될 모든 도구를 치워버려야 했습니다.

2) 가와바타 야스나리 : [설국]이라는 작품을 통해 노벨 문학상을 받음. 채워지지 않는 내면을 건디지 못해 그만 할복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에릭 프롬 : [소유냐 존재냐] "현대인들이 존재보다는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데, 이것처럼 절망적인 것도 없다. 사람의 행복은 'have' 동사의 문제가 아니라, 'be' 동사의 문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곧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결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물론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은 영혼의 존재로서 영혼의 만족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3.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3)? 이 말씀을 볼 때 니고데모의 근본문제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눅 17:21) ‘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내면문제를 아시고 그에게 영적진리를 말씀하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함을 알 수 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정말 잘 들어두어라',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I tell you the truth', 'Most assuredly, I say to you', 'Very truly, I tell you'

니고데모의 내면문제는 하나님나라를 보지 못한 것에 있다. 바리새인이요 종교지도자로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켜왔지만 하나님나라를 보지못했기 때문에 참 만족이 없었다. 절망과 어둠속에서 고통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근본문제를 거듭남의 문제로 보셨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나라를 보지 못하였다.

☞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나라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계시록 22:1-5).”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이사야 65:17-19).”

2)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이루시는 나라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있어 괴롭고 어두운 인생이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고 참 만족과 자유함이 있다.

눅17: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17: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롬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3)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나라

벧전1: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경험하고 맛본다’, ‘체험한다.’는 뜻으로 하나님나라를 죽어서 뿐만아니라 이 세상에서 맛보고 누리는 생활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가? : 거듭남이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난다, 다시 태어난다(born again), 중생(重生)한다, 위로부터 난다(born from above)는 뜻으로 육적인 탄생이 아닌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인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골1: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과 같이 본성의 변화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트리나 포올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hope for the flowers)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줄무늬가 있는 작은 애벌레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사는 그 이상의 삶을 찾기 위해 방황을 했습니다. 이런 그는 다른 애벌레를 짓밟으며 구름속에 가리워져 있는 기둥의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그곳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비가 된 옛 애인인 노랑 애벌레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 고치를 틀었습니다. 그는 고치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거듭날 때 어둡고 답답하고 한계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기쁨과 생명과 자유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하는가? : 거듭남의 필요성

첫째,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창3:8).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창2:7).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환경 속에 두시고(창2:8,9)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내에서 무한정한 자유를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오직 한가지의 명령의 주셨다(창2:16,17).

창2: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죄이며,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과실을 먹었습니다(창3:6). 그들이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창3:8).

창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3: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한 번의 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롬5:19).

롬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2,20,21에서는 죄가 어떻게 전 인류에게 전염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넘쳤으며”-인간의 모든 면이 죄로 물 들었습니다. “죄가 지배했다”-죄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함으로써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
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5: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롬5: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둘째,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창6:3).
창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
체가 됨이라
셋째,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나라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고전6:9).
고전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4)?

☞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나야한다는 말씀을 육적인 재탄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합
리적인 사고로 모든 사물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지식이 많고 율법을 많이 알았지만
육적인 지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육적으로는 고명한 학자였지만 영적
으로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고전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5. 예수님은 어떤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까(5)? ‘물과 성령으로 난 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막1:4, 눅3:3, 행2:38)

☞ 예수님께서서는 “진실로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 나야, 다시 나야- 한다(born again of water and the
Spirit)는 말씀이다.

☞ 예수님께서서는 거듭남의 방법-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한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는?

1) 말씀으로 거듭난다.

엡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케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벧전1: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
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약1:18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2) 회개함으로 거듭난다.

1:4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눅3:3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물이란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즉 회개는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중생의 역사를 하신다.

요일1:8,9 만일 우리가 죄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의 3단계

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인정하는 지(知)적인 단계

② 죄를 깨달아서 후회하고 자복하는 정(情)적인 단계

③ 의지적으로 그 죄를 온전히 떠나는 의지(意志)적인 단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1)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된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육으로 태어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딤후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 죄인(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엡2:3)를 받아 영원한 심판(계21:8)에 이르게 됩니다.

엡2:3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6.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왜 기이히 여겨서는 안 됩니까(6,7)? 여기서 인간은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까?(창2:7)

☞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인간이 살아가는 두 개의 구별된 영역, 즉 육계(the flesh)와 영계(the Spirit)가 있다는 사실

둘째, 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출생(give birth to)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셋째,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는 사실

넷째, 육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전혀 새로운 출생인 영적 출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교화시켜도 여전히 육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육일 수도 있고 세련된 육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이 성장하고 진보한다 할지라도 육은 여전히 육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육의 것을 추구해왔고 육적으로 자아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태어날 때 그 부모의 본성을 이어받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받게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벧후1:4).

벧후1: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 출생,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 인간은 영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창1:26,27).

창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 우리 인간은 영의 존재이다(창2:7).

창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몸에 ‘생기’-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생명의 본질-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이며 영계와의 교제를 가지는 부분이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 부분 - 영(spirit), 혼(soul), 몸(body) - 중 영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므로 최고의 것이었다. 영은 혼과 몸을 통치하게끔 되

. 그리하여 전인격이 영적이 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할 것이었다.

7.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다 비유하셨습니까(8)? 사람이 거듭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였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퓨뉴마”로 성령과 어원이 같다.

바람은 아무 때나 불고, 아무렇게나 임의로 불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다만 바람이 나뭇잎에 부딪치는 소리나 느낌으로,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뒤 남은 흔적,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그 열매와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갈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사람이 거듭난 사실은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는 그 열매와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 즉 거듭난자의 말과 행동, 삶 가운데서 성령을 통한 변화의 역사를 알 수 있다.

① 과거에는 성경을 허무맹랑한 책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경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의 말씀임을 믿게 됩니다.(예: 성 어거스틴, 탕자에서 신학자로)

②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를 위해 삽니다.(예:김익두,이기풍 목사)

③ 완악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예: 노예상인 존 뉴턴,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④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예:사도 마테)

⑤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예: 막달라 마리아)

⑥ 사람을 증오하던 사람이 사람을 용서합니다.(예: 손양원 목사님)

8.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까?(9,10)

☞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하며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의심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인정받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세계에 대해 무지하고, 믿음이 없음을 심히 안타까와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특권과 신성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했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공부해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그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가르치셨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한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육과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9.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11,12)?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14,15)?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 예수님께서서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셨지만 니고데모는 그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계속 육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겸손하게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땅의 일-거듭남-에 대하여 말하여도 믿지 않았는데 하늘의 일-구원-에 대한 것은 더 믿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책망하셨다.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1) 자기세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가치관을 쌓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를 방어하고자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할 때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2) 지적 교만 때문입니다. 지성과 이성으로 영적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위해 그가 알고있는(유대인이라면 다아는) 모세 5경 중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사건을 통해 그에게 믿음과 구원의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민수기 21:4-9)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바로의 쇠사슬 가운데서 노예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금새 잊어버리고 아직도 노예근성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길이 좋지않자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길이 험하다, 먹을 식물이 없다, 딱딱하고 맛있는 만나는 못먹겠으니 고기를 달라 등)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그들의 불평하는 입을 물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에게 간청하여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뱀을 매달아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뱀뱀을 쳐다본 사람을 나음을 얻었고, 약속을 의심하여 뱀뱀을 쳐다보지않고 자신만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믿음이란 자기 생각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은 자기에 기초한 모든 것-편견, 고정관념, 이성과 상식, 경험 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영접하고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 이 역사적 사건, 뉘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박혀 높이 달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화) 예수님을 바라보라

스펠전 목사가 눈이 많이 와서 자기 교회에 가지 못하고 앞에 있는 조그만 감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쳐서 길이 막혀 목사가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두 수선공이거나 재단사 같은 한 남자가 설교단에 서서 좀 어색한 말쑤으로 이사야 45:22절 말씀에 근거하여 외쳤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 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스펠전이 이 메시지를 듣고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즉시 영적인 눈을 뜨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 예수님이 지성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완성이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 진정한 자아완성을 이루었다면 심령으로부터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적인 것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영적인 탄생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나라를 회복하고 체험함으로써 참된 인간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적존재로 탄생되어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나라를 회복하게 되며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 이다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공동번역

- 1절 바리새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 2절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 3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 4절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 5절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 6절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 7절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 8절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 9절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 10절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 11절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 12절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 13절 하늘에서 내려 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 간 일이 없다.
- 14절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표준새번역

- 1절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의회원이었다.

- 2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하고 말하였다.
- 3절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 4절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 7절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 9절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 11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NIV

- 1 Now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 2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miraculous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 3 In reply Jesus decla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 4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Nicodemus asked. "Surely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 5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 6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 7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 8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 9 "How can this be?" Nicodemus asked.
- 10 "You are Israel's teacher," said Jesus, "and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 11 I tell you the truth,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we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but still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 12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then will you believe if I speak of heavenly things?"
- 13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the Son of Man.
- 14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desert,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 15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NKJ

- 1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ruler of the Jews.
- 2 This man ca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to Him,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come from God; for no one can do these signs that You do unless God is

with him."

3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Most assured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4 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Can he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5 Jesus answered, "Most assured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6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7 "Do not marvel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8 "The wind blows where it wishes, and you hear the sound of it, but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and where it goes. So is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9 Nicodemus answered and said to Him, "How can these things be?"

10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Are you the teacher of Israel, and do not know these things?

11 "Most assuredly, I say to you, We speak what We know and testify what We have seen, and you do not receive Our witness.

12 "If I have told you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will you believe if I tell you heavenly things?

13 "No one has ascended to heaven but He who came down from heaven, [that is,] the Son of Man who is in heaven.

14 "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even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15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NRS

1 Now there was a Pharisee named Nicodemus, a leader of the Jews.

2 He ca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to him,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an do these signs that you do apart from the presence of God."

3 Jesus answered him,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without being born from above."

4 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anyone be born after having grown old? Can one enter a second time into the mother's womb and be born?"

5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without being born of water and Spirit.

6 What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what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7 Do not be astonished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from above.'

8 The wind blows where it chooses, and you hear the sound of it, but you do not know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goes. So it is with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9 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these things be?"

10 Jesus answered him, "Are you a teacher of Israel, and yet you do not understand these things?

11 "Very truly, I tell you,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yet you do not receive our testimony.

12 If I have told you about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can you believe if I tell you about heavenly things?

13 No one has ascended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descended from heaven, the Son of Man.

14 And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15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